

장애물 헐기

모두 속해 있습니다 • 모두 봉사합니다

2017 여름 (장애가 있는 목사님들)

내 자신 기대에 도전하기

by 칼리 크리스트

기뻐하라! 공동체 교회(RCA), 레말스 아이오와

출생 이후에 뇌성마비라고 진단된 장애는 내 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시이다. 나는 만성 통증, 근육
경련, 손재주 부족 등 휠체어로 살지만, 그러나
이러한 보이는 한계들은 교회와 그 밖의 곳에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간과 될 수 있다. 어떤 교회들에겐 휠체어
접근성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커다랗게 "장애인

환영 않음" 표시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적인 면으로 볼때, 나를 사람들이 자선 사업 혹은 영감으로 보거나, 혹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거나 혹은 나의 성스런 존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는 것엔 힘이든다.

그럼에도, 기뻐하라! 공동체 교회의 비공식적 인사 "있는 그대로 오세요."란 것엔 나의 기대들이 도전을 받았다.

교회에 들어서면서 참석자, 그리고 한 회원, 그리고 지금은 교회 공동체 관리 책임자로서 난 자신들의 무너짐과 정신적, 정서적인 "장애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친교를 즐긴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 잘 알지 못하게 하는 욕심 층에 일이 필요하고, 연석 절단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나는 환영 받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외부 문을 열 수는 없지만, 사람들 삶의 문이 내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뻐하는 교회는 내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친다. 교회 건물이나 그 사람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목표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무대서 설교하는 것은 가파른 진입로에 극적인 입구가 필요하지만, 입구는 훨씬 더 나은 감각의 드라마로 가득찬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에 비춰 잊어 버리게 된다.

장애 변호인으로 기뻐하는 교회서 일함은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어떻게 취할지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준다. 무거운 문과 적절한 좌석의 부족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한 제한 요소는 하나님이 필요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선하심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야 할 사람들을 멀리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함 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해야 한다.

요한복음 9장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람이 못봄이 그의 죄나 혹은 부모로 인함인가를 상상함에 인내를 한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장애는 우리의 부서짐에 관계없이-그것의 반대에도- 우리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빛을 비추는 것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것은 내가 영감이 있다고 불러지는 것이 싫어함을 기억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약할때 그의 능력이 완전케 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사용한다.

죤니 에릭슨 타다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들을 마치 칠판에 그가 자신에 관해 훌륭한 교훈들을 쓰드시 우릴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주제들

이번 주제—장애가 있는 목사님들.

장애들을 생각하는 목회자들의 장애와 목회의 상호 작용을 다룹니다.

2017 가을—장애들을 갖은 어린이들을 배우기.

교회선 여러분은 장애를 갖은 어린이들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 혹, 여러분은 장애에 관해 좋아하는 어린이용 책이 있습니까? **8월 25일까지** 이야기들을 (400자 이내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018 겨울—장애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합니까, 혹 여러분은 장애를 갖은 사람을 일군으로 함께 일한적인 있는가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준후 여러분이 배운 것이 무엇인가요? **10월 25일까지** 이야기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mstephenson@crcna.org • tdeyoung@rca.org

은혜로 인도된 오랜 보장

by 톰 보스

개혁교회 은퇴목사, 웰스버그 아이오아

아이오와 주 웰스버그 제일 CRC 목사가 된 1년 후, 내 시야가 너무 줄어들어 더 이상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었다. 저는 "우리에게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장로님께 감사드린다.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목회를 위한 내 운전자로 봉사한다. 수년에 걸쳐 이 교회 성도들과 저는 목사로 긴 시간을 함께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들의 삶과,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문을 여셨다.

움직임을 위해 흰색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혼잡한 로비를 떠나거나 도와

주겠다고 상기 시켰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것은 어려웠다. 장로님들이 저를 도와 주었지만, 너무 늦은 시각에 교회에 온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종종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을 놓쳤다. 교리 문답 수업은 비공식적인 역할로 시작 되었기 때문에 누가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 복음 전도와 사람들과의 만남은 점점 어려워 졌다.

실수로 우리 병원의 수술실을 잃은 후, 운전기사는 생소한 환경에서 나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목사관에서 교회로 길을 건너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카운실은 은혜를 베풀어 연구를 집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길을 건너는 동안 몇 번이나 차가 나를 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가 멈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화면 판독기가 있는 컴퓨터에 의존하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확대된 문자를 읽을 수 없었다. 나는 점자를 읽는 법을 배웠지만, 공개적으로 읽는 데는 능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문적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목소리 오버" 방식으로 성경을 듣고 메모하고 큰 소리로 반복할 수 있었다. 나는 한 주에 2번의 예배와 다른 모임에서 많은 양의 청취로 인한 청력 손상을 두려워하여 우린 28년이 지난 후에 은퇴 할 것에 동의했다.

이 장애가 웰스버그의 사역에 영향을 주는 동안, 내 봉사의 많은 부분을 목격 된 목회자가 경험했던 것과 같았다. 예배, 청년 그룹,위원회 모임, 목회 적 돌봄, 장례식, 침례, 신앙 고백 및 결혼식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성장했다. 그곳의 사람들과 우린 매우 가까워졌고, 아마도 우리가 길을 함께 걷지 않았더라면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곳에서 28년의 사역 연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CRC교회의 고귀한 사람들과 복된 장소로 인도했다고 확신한다 (시편 16 : 3, 6).

2016년 “최고의 뉴스 레터”

2년 연속, 교회 언론 연합(ACP)에선 ‘장애물 헐기를 2016년의 이 분야에 최고 기사 레터로 선정했습니다.

ACP심사위는 ‘장애물 헐기가 "설탕발림의 재밌는 문제들 혹은 관심사들이 아니지만... 글쓰기 및 편집, 주제, 형식 및 디자인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광범위한 장애 및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 독자 친화적인 출판물로 탄생 시켰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 유용하고 정보가 풍부하며 영감을 주는

내용들로 인해 각 이슈가 높은 '합격' (인쇄 또는 전자)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평했다.

장애물 헐기는 다른 두개의 상을 시상했습니다:

- 에릭 그루트-니블링크의 "사색, 보물, 희망"를 개인명상/영감부분에 상을 수여 (2위) 하면서, "끔찍한 교통 사고를 당한 후 물리치료와 함께 오는 시련과 고난에 대한 생소하고 가슴아픈 그러나 고양된 이야기" 라고 한 심사위원은 썼습니다.

- "학대 및 장애" (2016 겨울)에 대한 주제 논쟁을 위한 존경할만한 언급. 심사위원은 이 글이 "독자를 끌어 들이며, 설득력있는 자료로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투명성의 사역

by 조 쿠섹

미주 개혁교단 (RCA) 목사, 지랜드 미시간

1990년 10월 교회에 처음으로 목회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실독증을 비밀로 지키려고 했지만 곧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처음으로 장애의 사실을 당회와 몇 교회 회원들과 나눴다. 우리는 이것이 예배를 포함한 사역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결국 내 실독증은 교회에 공개되었고 대다수는 저의 주위를 모여 기도와 도움을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성경 읽기와 다른 예배를 위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웠다.

난 왜 장애를 숨기려고 했을까? 난 2학년을 또 다시 했다. 2학년 연말에 모든 학생들은 내년에 새로운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3학년 교실로 넘어갔다. 난 2학년 책상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모든 1학년 학생들은 승진해 2학년 교실로 행진했는데 난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한 소녀가 다른 애에게 "젠 뭐가 잘못 됐니?"라고 묻는 것을 난 들었다. 다른 한 소녀는 "그는 바보야!"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내 장애를 숨기는 계기가 되어

웃음과 싱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 방어 자세는 30 대 때까지 계속 되었고, 윌리엄 패터슨 대학의 한 학생으로서, 난 장애를 갖은 한 사람임을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고 깨달았다.

수년에 걸쳐 주님께서는 나의 장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격려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함께 봉사하는 여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27년 동안 주님께서는 제가 목회자 또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도록 축복해 주셨다. 투명성과 정직만이 그리스도의 훌륭한 종으로서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배웠다. 실제로 주님께서 나의 사역 능력을 주저없이 -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내 삶에 데려 왔기 때문에, 장애의 현실을 나누는 것이 나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었다.

난 나이가 들면서 베트남 청문회에 대한 피해로 인해 또 다른 사역의 도전이 추가 되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의 잠재력과 효율성을 지지하고 기도했다.

나의 장애를 공개하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을 확증하고 팀 구축의 원천이었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장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축복해 주었다.

분필을 잡기

by 론 나이담

칼빈신학교 은퇴 교수, 그랜드 래프츠 미시간

내가 천천히 구부릴때는 교실이 죽은듯이 조용한데, 부분적으로 마비된 손을 카펫쪽으로 밀때엔 부분적으로 마비된 손가락에서 분필이 떨어졌다. 나는 학생들이 어떻게 나의 새로운 육체적 한계와 어색한 당혹감을 경험했는지 궁금해 하는데, 또 한

번 무언가를 떨어 뜨렸다.

65세에 팔과 손에 있는 신경의 약 65%를 파괴한
감염에 의한 두 번의 급성 백혈병과 상완
신경염에서 2회의 박동을 감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해도 좋은 가르침을 만들기 위해 힘을
썼다. 나는 장애를 갖은 사람들 그룹에 포함됐다.

58세가 될 때까지 나는 매력적인 삶을 살았다. 49
세부터 선생님으로서, 난 목회 사역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라보고 있던 칼빈 신학교 학생들과 교실서
매 순간의 대화를 즐겼다. 교실의 마법,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은 내겐 매일 축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줄기 세포 이식을 포함해 거의 1년
동안 입원 치료를 마친 후, 나는 교실로 돌아와서,
회복중이지만 종종 학생들의 목양을 받고 있다.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반대의 상황은 보살핌의 측면에서 강력하였지만 난처했다. 나는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자신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나의 장애가 나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했다.

되돌아 보면, 개인적인 장애로 교실에서 학습이 향상되는 한가지 방법을 알 수 있었다. 명백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바닥에 분필이 놓여있는 것처럼 스스로 시험해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돕기위한 충동 - 나를 위해 들고 데려 오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해결사가 되고 싶어한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결정들을 못할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다른 자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할때, 단순한 공감의 순간을 맛 보았을 수도 있다.

인간으로써, 또 확실한 목양의 학생들로서, 각자는 호기심과 환대의 선물로 다른 사람의 신발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인간의 괴로움에 합류한다. 예수님께서서도 그렇게 하셨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자신을 비우시고, 하인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장애는 학생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될 기회를 나에게 주고 있다.

편집장의 메모

배려의 교훈들

목회자가 장애인으로 알려져 생활 할 때, 사역은 자연스럽게 공통된 노력이 됩니다. 특히 사역이나 언약이 확립 된 후에 장애가 발생하면 "존중하는

협상을 통해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서로간에 바람입니다.

누구에게나 그것을 바라진 않지만, 교회안에 이런 인식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목회자가 갖고 있는 장애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의존성은 상호 의존성의 은사들로 변화되면서, 또한 모든 종류의 문을 열어 줍니다.

장애가 있는 목회자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영성과 환대 : 교회는 장애를 갖은 분들을 환영함으로써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미주개혁신교단(RCA) 신학 위원회의 온라인 웹 사이트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단순히 교회 사역의 '수령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현하기 위해 교회 전체를 돕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당한 자리를 찾을 때이다.

교회는-장애가 있거나 없거나-모든 사람들의
은사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참여시킴으로써 더
건강케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깨닫기에는 목회자의
장애가 필요합니다.

— 테리 A. 디영

© 2017 북미주 개혁교회(CRC)와 미주개혁교회(RCA)
장애 사무처 사역. 장애물 헐기는 매 분기별로 CRC 장애
사무처-1700 28th S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and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그리고
RCA 장애 사무처-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에서 발행한다. 마크 스트븐슨 목사, CRC 장애
사무처 디렉터(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와
테리 디영목사, RCA 장애 사무처 코디네이터(616-541-0855;
tdeyoung@rca.org)가 이 장애물 헐기를 함께 편집한다.
본 내용의 복사함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허가를 허용한다.

북미주 개혁교회(CRC)와 미주개혁교회(RCA)의 공동 장애
사역

www.crcna.org/disability • www.rca.org/disability

